

앞뒤 다른 WEA 이중적 행동 지적

제64차 총회 8회 임원회

교단 제64차 총회 8회 임원회가 지난달 25일(목) 오전 11시 의정부 은혜교회 회의실에서 열려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WEA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함을 강조하고 WEA 세계지도자대회의 각별한 경계를 당부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의 기도, 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는 설교를 통해 WEA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이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복음이라는 가면을 쓴 비성경적인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 전파에 전력을 나날 것을 강조했다.

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 바로 총회장 진등용 목사 주재로 회의에 들어가 총무 보고에서 교단 업무보고로 목사고시 외 각종 업무사



항들을 보고하고 교계 업무보고로 (사)기독교단협 신년하례 감사예배 등을 보고하고 교단 재무 김종연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영준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인간 및 토의 결의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역자전출임 청원,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휴직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등의 내용이 처리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제65차 정기총회가 5월 16일(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개최되는 것과 필리핀지방회 정기지방회 개최, 64차 총회 5회 실행위원회 개최 등의 일정을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날마다 죽는 사람'



조용목 목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바울 사도가 의도한 뜻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부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과 곤란이 어떠하였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늘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유대인 회당이나 낯선 지방 도시마다 가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활동과 율법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야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기라고 힘써 외쳤습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동족과 이방인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 맞고 투옥되었으며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자신을 매일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키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의 말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둘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옛 사람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성령을 거스르는 옛 사람의 기질과 본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만과 탐욕입니다. 교만과 탐욕은 죄악 된 모든 행동의 뿌리입니다. 교만한 본성은 무엇이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는 행위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의 본성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우리를 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하루만큼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다만 각 사람이 죽음에 도달하는 지점이 일정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 예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사망의 종노릇을 합니다.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쇠사슬에 매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들이라도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삶의 날수는 한정된 것이며 그 날들이 쉬지 않고 지나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일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또한 날마다 죽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므로 귀한 날들을 감격과 기쁨으로 장식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단 2016년도 목사고시 22~23일 양일간 치러져

총회 고시위원회 주관

교단의 2016년도 목사고시가 지난달 22일(월)과 23일(화) 양일간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사단장) 주관으로 총회신학원에서 치러졌다.

시험 첫 날인 22일(월) 오전 9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신학원 3층 예배실에서 고시위원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이문근 목사의 기도, 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고시위원 소개와 시험일정 안내 순서로 예배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17:5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감당해야 한다”고 전하고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요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요 오직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하며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사역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수험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이어서 1교시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을 시작으로 교회행정학, 교회성장학, 교회사, 조직신학, 목회윤리학, 기독교교육학, 헌법 시험이 차례로 치러졌고 둘째 날에는 설교와 면접 등 목회실기 시험이 계속되었다.

올해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과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5월 16일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6년 3월 21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11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목

예장연, '97주 3.1절 국가기도회' 개최

3.1 기독교정신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끌 것

교회다움 회복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이하 예장연)는 지난 3월 1일(화) 오전 11시에 서울 광진구 목동로 능려선교회(담임 임은선목사)에서 제97주년 3.1절 국가기도회를 개최하고 일제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혼란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남북의 친애한 대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한 마음되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자분위원 조영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장승우 목사의 대표기도, 총무 하태관 목사의 성경봉독, 부회계 김마리 목사의 색소폰 연주, 능력선교회 가브리엘 워십 찬양단의 찬양, 상임회장 이광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왕하 10:18-29 말씀을 본문으로 '비밀송배자들의 진배'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자들과 복음을 정치와 타협하고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 자들은 비밀을 숨배하는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문 김기형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



며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교회와 정계지도자와 대통령을 위해', '한국경제와 사회 복지를 위해', 'WCC와 이단폐지를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예장연과 가립교단들을 위해' 황대영 목사, 김병선 목사, 한순용 목사, 서재복 목사, 하석수 목사, 김태지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회계 오선미 목사의 헌금기도에 이어 능력선교회 담임 임은선 목사와 이광용 대표회장이 인사말을 전했고, 이광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3.1운동은 실로 종교와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보인 자주와 자유와 평화의 정신이며 종파와 교파가 다르고 이념과 신조가 달라도 민족 구원의 소망 하나만으로

손을 잡고 비폭력의 3.1만세운동을 이끌어 갔던 것"이라며 "오늘의 한국교회는 1200만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3.1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 선교 126년을 맞은 한국교회는 비전과 사역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 순대영 목사의 3.1절 선언문 낭독 후 상임회장 차득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예장연 회원들은 '3.1절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사회의 등불이 되는 교회로 다시금 일어서서 빛을 발하여, 복음으로 이 땅을 통일하고 7000만 민족의 희망으로 우리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복음의 주역이 될 것"이라 밝혔다.

회원들은 또 "교회 안의 갈등을 끝마치고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데 앞장서서 3.1운동과 같은 조상들의 평화와 민족 구원의 정신을 계승하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3.1정신과 기독교 사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과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교류의 확대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어떻게 준비하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제32차 열린대화마당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 제32차 열린대화마당이 오는 3월 8일(화) 오후 3:00 성락성결교회(지형은 목사)에서 한목협 소속 15개 교단 회원교회 목회자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개회행사, 정병식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이재전 목사(목회와신학연구소 소장) 김원배 목사(한목협 상임회장)의 발제의 주제발표, 발제자와 전체 참석

자들의 열린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화마당은 지난 1월 14일(목)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를 주제로 열린 대화마당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대화마당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종교개혁과 같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본질적인 개혁의 필요성과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을 맞은 한국사회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 핵문제와 극심한 이념 대립,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불확실성의 증가는 물론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추방으로 인한 종교적인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 한국교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6 광림교회에서 부활절연합예배 드린다

설교는 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

2016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는 오는 3월 27일 오후 3시에 '내 양을 먹이라'(요 21:17)를 주제로 서울 강남구 논현로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에서 열린다. 설교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채영남 총회장이 나선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2월 12일 오전에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사파이어홀에서 교단장회의를 갖고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부활절연합예배와 관련된 규모와 접근성, 교단 안배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이 WEA 세계지도사대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이어 교단장회의에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사명자 되라”

비브리칼신학교 학위수여식



예장 보수정통총회 소속 비브리칼신학교(학장 강진명 목사)가 지난 19일(금) 여전도회관 루이스홀에서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고, 신학부 오백만 외 2명과 신대원부 나병찬 외 12명에게 각각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은 1부 감사예배와 2부 졸업장 및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신대원장 반정웅 목사의 사회로 강용희 목사(예총연 신학협회장)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강진우 권사의 특별한 양에 이어 학장 강진명 목사가 설교했다.

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떠한 순간과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주의 종,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사명자가 되라"고 당부하며

축복했다.

2부 졸업장 및 감사패 수여식은 신대원장 반정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명예 학장 박인대 목사가 졸업증, 학장상, 신대원장상, 우등상 등을 수여했다.

학장상은 이영찬, 이철기, 오병진 전도사, 신대원장상 이상근, 조진태 전도사, 우등상은 나병찬 전도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유영섭 목사(예총연 대표회장)의 권면, 명예학장 박인대 목사의 축사, 신대원장 반정웅 목사의 광고, 학장 강진명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영섭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권면을 통해 "사역의 현장에서 욕심 넘어지더라도 사랑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줄 것이다"라고 당부하며 "어느 자리에서든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비전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사명이 되라"고 권면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D나라와 위장자, 안보 경제, 민족복음화, D불우한 청소년과 소녀, 소녀 가정들, D지역사회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D비브리칼신학교의 부흥과 발전, D전반기 학사일정을 위하여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기독교자유당, 3.3 창당대회 본격 선거 레이스

당 규약 채택 및 당직자 인선, 지구당 구성



기독교자유당이 3월 3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번 창당대회에선 당 규약 채택과 당직

자 인선을 비롯한 서울, 부산 등 20여 개의 지구당도 구성한다.

기독교자유당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9일에는 '동성연애법 처벌금지법 이슬람 지지'를

위한 기독교자유당 100만 서명 발기인대회(사진)를 열어 창당 준비위를 구성하고 창당 작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오는 2월 29일에는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여·야 3당 대표와 253개 지역구 대표 목회자 1천명 초청 공개질의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5만표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44만표로 아깝게 당선자를 못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4.13총선에서는 지난 과오를 경험삼아 사전에 1천만 기독교인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관철키로 했으며 비례대표자 후보자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신앙과 덕망, 실력을 갖춘 인사를 후보자로 내기로 했다.

기독교자유당은 이번 4.13총선에서 60만표 이상을 확보해 5명 이상의 국회의원(비례대표)을 배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간 신장이식 수술



"신장기증을 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북한이탈주민 손하나(48·여)씨와 주명희(40·여)씨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를 찾았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한 이들이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본부를 방문한 것이다. 손씨와 주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간 신장이식 수술을 한 주인공들이다.

손씨와 주씨는 2011년 탈북 후 하남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에서 만나 의자매를 맺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장미빛 미래만 있을 것 같았던 이들에게 큰 시련이 닥친 것은 2012년, 주씨가 탈북 1년 만에 당뇨병 진단을 받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 급기야 2014년부터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져 일주일에 세 번씩 혈액투석을 받아가야 했다. 힘들어 하는 주씨를 외면할 수 없었던 손씨는 주씨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12월 28일,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주

민 간신장이식수술을 하게 된 손씨와 주씨는 기증 수술 후 2개월여가 지난 24일, 건강한 모습으로 본부를 찾았다. 신장 기증인 손씨는 "신장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 승인 절차를 위해 힘써주고, 검사 및 수술비를 후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며 "저와 명희가 본부의 도움으로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손씨는 "내가 언제 신장을 기증한 적이 있었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하며 "퇴원 한 달만인 지난 1월 한리산을 등반해 제주의 기운을 받고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씨 역시 "수술 후 건강이 매우 좋아져 본부에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전하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들었을 때 끝까지 내면이 되어준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기증인, 이식인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통 받는 환우들을 위해 협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3392

세기총, 몽기선협과 MOU 체결과 의료품 전달

300만 몽골인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당부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적 선교지로 몽골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현지에 맞는 선교를 펼치며, 세계복음인원보호운동이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몽골선교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이루고, 복음이 현지인으로부터 유린되지 않고 목적과 상생의 삶을 펼 수 있도록 기독교적 민간선교지원의 사업협력 체결 및 의료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세기총은 "세기총과 몽골기독교총연합회선교회의 MOU 및 의료품 전달식"을 지난달 22일 ~ 28일까지 4박 5일간 몽골 현지에서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상임회장 원종분 목사, 공동회장 김희선 목사, 세기총 법인이사 유영식 목사, 사무국장 신광수 목사가 참여하여 함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여러분들이 300만 몽골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이 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한국교회



가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20시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비앙주르구에 위치한 선교회 건물에서 몽골기독교총연합회선교회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몽기총선 법인이사장 김동근 장로는 경과보고를 하면서 2015년 11월에 법인으로 설립하기를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전하면서 몽골의 복음화와 지역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축사를 맡은 세기총 상임회장 원종분 목사는

"몽기총선이 만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국제협력단체를 더욱 확보하게 되었고 복음 확장을 위한 거점 확보로 안정적이며 유익적인 선교지 확보를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현지에 맞는 선교 방안과 지속가능성의 태데터 확보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내국인이 현지 선교지에서 MOU를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인원 보호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박종근 목사 은퇴 및 최계순 목사 취임

부산지방회 은혜교회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집 목사)는 지난달 22일(월) 오전 11시 은혜순복음교회 박종근 목사 은퇴 및 취임예배를 동 교회 대성전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신복희 목사(순복음화평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계 2:10의 성경봉독, 마리아탄양단 임지연 전도사의 축하공언에 이어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취임하는 담임목사는 전임 목사의 뜻을 잘 이어 더욱 부흥 발전하는 은혜순복음교회가 되도록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목회에 헌신하고 은퇴하는 박종근 목사의 노고



를 치하했다.

2부 박종근 목사 은퇴식은 사회자의 약력소개, 지방회장 한명집 목사 은퇴패 증정과 공포, 박종근 목사의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3부 최계순 목사 취임식에서는 지방회장 한명집 목사가 최계순 목사에게 서약을 받은 후 치리권을 부여하고 이를 공

포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박용호 목사(순복음오일교회)가 권면,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헌금기도, 마리아탄양단 윤명옥 전도사의 헌금특송, 최계순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목회자 기도모임, 기도의 불씨 교단 전체로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인 목사)에서 매일 둘째주(화) 오후 7시에 열리고 있는 '목회자 기도모임'이 회를 거듭할수록 그 열기가 뜨겁다.

지방회 소속 회원 간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교회성장의 정제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심신이 지쳐있는 회원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시작한 기도모임이 이번 달로 8회째가 되면서 이제는 기도모임 시간을 기다리는 회원들이 생겨나고, 관심 있는 사모들까지 동참하면서 앞으로 기도모임이 사모들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해 달라고 간청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가나안농학교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의 기도실에는 '조국이며 안심하라 내가 있다'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한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고 그 아들 김범일 장로의 기도실에는 '아시아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라는 기도의 정신이 붙어 있다고 한다.

광주지방회 목회자 기도모임은 '세계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라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어느 때보다 목회자들의 기도가 절실한 이때 광주지방회에서 시작한 기도의 작은 불씨가 교단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 나길 소망한다.

복음중심, 말씀중심의 행함이 있는 사역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영광 목사)는 지난 2월 15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진리교회(담임 김바울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여 2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성경봉독(출 35:30-31), 증경지방회장 김홍광 목사(주내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출 35:30-31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름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알게 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하고, 둘째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하며, 셋째 영적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신실한 종이 되어 복음중심, 말씀중심의 제자를 양육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



흥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우리 모두는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하여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주님께서 부르셔서 각자에게 주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회원의 교회와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며 지방회 회계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 총무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광고에 이어 증경지방회장 김홍광 목사(주내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임용재 목사(순복음산정리교회)의 기도 후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회원점명으로 시작하여 각부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의 폐회기도로 모든 회의를 마무리했다.

교제시간에는 순복음진리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하고 회원단합과 회원간에 교제를 나누며 은혜기운에 월례회를 마쳤다.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인 목사) 소속 순복음복된교회(담임 최정식 목사)는 매년 교회 절기와 고유명절 때가 되면 소외된 이웃들과

관공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과일과 쌀을 선물한다. 개척 초기부터 이 같은 선교를 시작한 복된교회는 지난 설명절에도 굴 110박스를 이웃과 성도가정에 전달하는 사랑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미담이 되고 있다.

'성경적 경제부흥'을 통한 축복의 복을



을 외치는 최 목사와 복된교회는 '복음과 빵'이 선교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도현장과 이웃들에게 항상 함께 가야 한다며 가까이 교회제정의 30%를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비에 사용한다.

특히 복된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용돈은 그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3월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이웃사랑초청잔치'는 와이즈먼 협찬으로 금년에 8회째를 맞으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도 약 6백만 원의 예산으로 50포대의 쌀, 4명의 전문의사와 약사, 간호사, 의약품, 변호사, 이미용사, 한방진료 등으로 봉사대를 꾸려 지역민을 위한 봉사를 펼치게 되어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돼지 한 마리로 준비한 오찬은 금년에도 기대를 받고 있다.

목양일념, 맡겨주신 양떼 말씀과 기도로 섬긴다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는 지난 달 23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성산팔복교회(담임 이종선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목양일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양육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신홍선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오경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갈 5:25-26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와 성령'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전하고 "목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이순애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도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월례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마치고

회원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줄 것과 복음주의의 가면을 쓰고 WCC와 기톨릭과 공동선언문을 공표하고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 WBA를 경계할 것을 알리고 순복음성산팔복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다과와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연간목회계획, 설교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최철민 목사)는 지난 2월 22일(월) 오전 11시 은혜회승리교회(담임 이은승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서기 윤희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회계 유석구 목사(에바디순복음교회)의 기도, 지방회 증경회장 조남영 목사(기평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빌 2:5-8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을 보려는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자 진리의 길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전제한 후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제를 가지셨던 예수님께 겸손을 본 받아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종이 될 것"을 당부함은 물론 "끝까지 변화가 없으셨던 예수님처럼, 처음 기뻐했던 열정과 사랑과 진실된 마음을 끝까지 변치 말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과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않는 교단과 지방회의 정



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을 역설하였다.

이후 지방회 부회장 임홍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2부 월례회는 부회장 임홍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지방회의 각종 회무처리를 진행했으며, 은혜회승리교회(담임 이은승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은혜롭고 화기애애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다시 한 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연간목회계획과 설교계획 세미나'라는 타이틀로 지방회에서 준비한 목회세미나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 강사로 나선 임홍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 목회연구원)는 자료를 제시하며 연간목회계획이 잘 세워져 있을 때 성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활기를 띠게 되는 유익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설교에 대하여는 목회자가 먼저 성경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지녀야 함은 물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기복적이고 즉흥적인 설교를 경계하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설교가 되어야 할 것과 이를 위하여 주간별, 월간별, 연간 설교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근거한 설교를 진행할 때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내세관이 뚜렷한 교회로 변화될 것임을 피력하였다.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한 지방회 모든 목회자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다음 정기지방회 때 만남을 약속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대한민국축구선교회, 루터대와 업무협약



대한민국축구선교회(대표 박애복 목사), 경기도축구발전협동조합(이사장 최창현 장로), 한국권투연맹(회장 이인경) 3개 단체가 지난 2월 15일(월) 루터대학교(총장 김영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본 교단 스포츠선교회원장 김순구 목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역

하고 준비해 온 경기도축구발전협동조합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성사된 일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스포츠선교의 출발 신호탄으로서 앞으로 선교사역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개를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축구선교회(대표 박애복 목사)를 섬기면서 해마다 프로축구선수 제

능기부행사를 기획해왔던 김순구 목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선교를 구체화시키는 발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함주어 이야기 하고 있다.

협약 내용은 산학협력력을 통하여 대학교육과 산업체간의 연계강화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및 학술연구 교류 및 지원, 교내운영과 교육과정 자문 및 참여, 교육운영 및 맞춤형 교육과정 자문, 산업체위탁 교육과정(계약학과 포함),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등 산학협력에 구체적인 조항을 협약하고 있다.

한편, 김순구 목사는 경기도축구발전협동조합 총괄회장직으로 섬기면서 대표회장, 고

■ 생명의 말씀 ■



심재덕 목사

· 인천지방회 중경회장
· 주안복된교회 담임

사도 바울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힘주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가 없노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상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나의생활 속에서 아주 조그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최상의 은혜는 나의 생활 속에서 아주 조그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아주 보잘 것없이 보이는 축복의 조건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줄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최상의 은혜 속에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 다.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것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감사하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함조차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원리를 알고 살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최상의 은혜는 이렇게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지혜를 갖는 것

최상의 은혜 속에서 믿음

(엡 3:7-9)

입니다. 작은 은혜, 작은 축복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생활을 하면 생활 마다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거기다 지금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나이를 먹고 나서 늦게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이 좋다고 무한정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

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그냥 넘겨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 할 수 있게 된 것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아마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을 바울처럼 기뻐하며 좋아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도 드리기에 힘을 씁니다. 마음도 드리고 정신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아주 조그만 은혜들도 커다란 은혜로 알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비로소 감사함이 스며들게 되고 기쁨이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고 보다 더 귀한 것을 구하게 여기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가 없도다”. 이것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큰 축복의 삶이라 믿습니다.

방부 펜타곤이 공격을 받은 대참사로 인명 피해만 2800~3500명에 달하고, 경제적인 피해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엄청난 참사에서 미국의 정치계는 물론 언론들도 일제히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다. 대통령이나 관련 책임자, 군 수뇌들의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2002년 전국민적 합의로 조지 W. 부시가 발의한 국토안보법에 의거, 미국 국토안보부 개설했다.

정치적 입장과 견해는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인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 편·내 편이 있을 수 없다. 국가가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파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우월리를 따라서 비난을 위한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인식하지 못하는, 민명(民命)의 극치이다.

400년 전 진언제란 때를 상기해보자. 국론분열은 전화(戰禍)를 불러들이고, 내부 균열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은 북의 수소폭탄 앞에서 단호한 의지의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국가의 안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다. 갑론을박 할 때가 아니다. 열방국가가 아무리 우리를 도우려 해도, 국론이 참예하게 분열되면 방방이 없다. 여야, 보수 진보가 이념만큼은 꼭 하나가 되어 북한 김정은의 불장난을 확실하게 저지하자.

동 정

기독교공정개발연구 MOU체결



한국기독교공정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 생명나무교회)은 19일 구로실용음악협회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MD(이사장 김능기)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단체는 이날 한국교회에 쓰레기를 줍는 겸손한 문화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루터대, 명품 평생교육원 개원



루터대학교(총장 김영욱)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지역주민의 사회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면서 자기계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명품 평생교육원을 오는 3월 21일에 개원한다. 루터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체제와 재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망에 부응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 이창식 신임 이사장



사)한국해비타트는 24일 이사회를 통해 이창식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창식 이사장은 지난 2004년 푸르덴셜투자증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1997년부터 한국해비타트 이사, 2009년 한국해의원조단체협의회 회장을 거쳐 2016년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이창식 이사장은 한국해비타트가 만드는 삶의 보금자리를 통해 가정의 회복을 기원했다.

한일장신대 필리핀 의료봉사



한일장신대학교(총장 오덕호) 간호학과 학생들이 필리핀 마닐라지역에서 1월 18~22일까지 의료봉사를 통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간호학과 소성섭 교수와 문정인 학생(2학년), 이재혁 학생(1학년)이 참여했으며, 전주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과 전주동신교회 의료선교단, 한일장신대 간호학과 봉사동아리가 공동 진행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북한의 수소폭탄 앞에서 국론분열은 자멸행위

지난 2006년 9월 19일, 노무현 정권 때, 중국이 주도하는 제4차 6자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9.19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단계적 비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不攻擊), 북·미간의 신뢰구축 등의 선언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북·미 관계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의 김정일은 이듬해인 2006년, 보란 듯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 9.19합의를 한신짜처럼 팽개쳤다.

이후,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미 본토를 강타할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실험에 이르기까지 핵폭탄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해왔다.

특히 지난 4차 핵실험은 원자폭탄의 수백 배, 수천 배에 이르는 엄청난 파괴력과

살상능력을 지닌 수소폭탄핵실험이라고 공언했고,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수소폭탄 실험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혀 또 다른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위험을 무릅쓰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칼을 빼들었겠는가? 또 중국의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사드 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결단이 얼마나 고뇌에 찬 것이겠는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의 고심 끝에 내린 통치적 결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온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1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

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이 한신짜처럼 패대기친 9.19합의를 다시 꺼내놓고 나온 것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9.19선언이 아닌가?

이는 우리 대통령의 대국민 국회 국정연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온갖 마티도어로 공격하는 좌파와 야권을 겨냥한 국론분열전략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략이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보다 국가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 김정은의 광기 어린 수소폭탄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공격의 화살을 우리 내부와 정부에다 퍼붓는 세력들이다.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제 제재를 무시하며 마음대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의 국론분열이 김정은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대통령의 국가 역사적인 결단에 대하여, 개성공단 기업화장이라는 분은 “맹목적인 보수표심을 잡기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며, “국내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개성공단 중단 사태란 국민에게 ‘분단 폭박’을 남기는 것”이라는 독설을 뽐내었다.

어디 정계뿐인가? 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진보 단체들은 한결같이 양비론을 들고 나오며, 북한보다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요구와 6자회담에 의한 평화협정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유연의 제재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떤 인사는 정권교체까지 들먹이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로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버지니아 주 일명된 군의 미국 국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Wedding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혼합 지지

WEA(세계복음주의연맹)의 세계지도자대회 반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올곧은 신앙과 교회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36년의 일제 강점기와 3년의 6.25동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고 모진핍박과 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교회 안으로 붓 물 터지듯이 밀려 들어 오는 적그리스도적 논리와 현실적응의 신앙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불행하게도 희석되어 가고 있는 형국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선배신앙인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신앙의 순수성과 전통성을 위반하고 한국교회가 용납할 수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잘못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 세계종교통합주의 사상 등에 편승해 한국교회를 조각내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에 어리석은 목사들이 동조하고 있다. 성도들은 목사들이 하지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순진하게 따라나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상들은 성경의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에 대단히 잘못된 사상이며 신앙의 혼란과 한국교회에 분열과 파괴만을 가져오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국제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들의 잘못된 주장과 담임성이 신앙의 순수성과 전통성, 본질을 수호해야 한다는 명제를 지금까지 지켜온 복음의 본질과 담임성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0월 부산에서 치러진 '제10차 WCC(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는 본 연대가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을 지키고자 나선 대표적인 반대 집회이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10월 29일 WCC부산총회 장소 앞 광장에 (부산 벡스코센터)에 5만 여명이 전국에서 진리 사수를 위해 일시에 모여 제10차 WCC부산총회를 '사탄의 회'로 규정하고 힘을 모아 반대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베도자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미천가지로 WEA(세계복음주의연맹)는 신학위원장 슈미허 박사를 파송하여 "WEA는 WCC와 입장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세계종교를 통합하며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있는 WCC의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가 WEA라는 것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과는 한국교회가 결단코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세계복음주의연맹'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부채질하고 결국엔 타락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을 본 연대는 결코 지켜볼 수 없었다. 반드시 중지되어야 하려고 행사지체를 한국교회에 당연히 거부해야 하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

1. WEA의 모체는 WEF(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이다.

미국교회들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과 개혁성향을 가진 정통 보수신학이 심각한 붕괴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성경적인 근본교리를 수호하고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에 대응하는 '근본주의 신앙'이 형성되게 되는데 근본주의에서 파생되어 변질된 자들이 '신복음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복음주의자들이 창립한 단체가 WEF이다. 이들은 신학교 건립, 매스미디어의 활용과 함께 WCC를 비롯하여 자유주의 신학과 로마 천주교 교황청의 신앙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폭넓은 교제를 했으며 이러한 WEF가 2001년에 지금의 WEA로 개명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통 '복음주의'는 '비복음주의'에 해당하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사상에 반대하며 그들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음주의는 결코 로마 가톨릭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것이다. 하여, 정통 무오한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잘못된 사상들과 결코 타협하거나 한치의 양보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WCC나 WEF 또는 WEA는 바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신앙을 타협한 것이다.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신앙을 양보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과 폭넓은 교제와 협력을 추구하는 미명아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목에 칼이나 더 한 위협을 받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적 구원의 유일성"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이것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한 가톨릭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회의 불의에 항거하는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한 발 양보해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를 같이 할 수 없으며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WEA의 '신복음주의'의 노선은 이미 박형룡 박사가 비판한 바 있다.

"각국의 복음주의자 협회는 세계복음주의연맹의 각국지부의 명칭으로서 WCC에 유대나 이단을 묵인하고 '신복음주의'를 선포하며 베도 교단 안에 머무는 자유주의 타협자들의 집단행동(요음, 연합, 일치, 사상)을 그대로 묵과하면 말지 않는 장래에 우리 교단 안에도 신복음주의의 이단의 정령, 각종 이단설의 허용, 용공, 진공 활동의 성행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본래의 정통신학은 잃어지고 말 것이다. 이 위험한 불협운동을 하투 배제 물리쳐야 한다."

보수신학을 수호한 박형룡 박사의 외침에 한국교회는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교회들이 융공(容公), 진공(親公) 복음주의 집단행동(요음, 연합, 일치)사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국제무대에 외톨이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발미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김상복 목사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2008 총회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회장에 선출된 다음에 주장한 것을 보면 여전히 '신복음주의자'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는 결코 정통신앙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잘못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는 두 가지의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기독교로 인정해야 하며 WCC나 가톨릭과의 교회 일치사업에 주력하고 싶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않는 단체'를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 김상복 목사가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 그가 제시한 두 가지의 대전제에 동의하며 추가로 얼마든지 신앙을 혼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매함을 넘어서서 사탄의 종의 되어서 교회의 정통신앙을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자 같은 행동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이다.

2. 로마 가톨릭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다.

그들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07년 8월, 'WCC, WEA, 로마교황청' 등은 '종교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선교행동규약'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해괴망측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도행위이다.

이 규약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각자의 신앙을 전파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을 포함한 다른 종교인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개종전도 금지'와 같은 반 선교적인 입장을 밝혀 놓은 것이다.

이것은 WCC가 이미 1997년에 발표한 '공동의 증언을 위하여' (Towards common witness)라고 하는 문서를 근거로 출판되고 확장되어진 것이다. 이 문서는 "가톨릭과 정교회의 신앙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종의 분례가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고 분석하면서 "자신들의 교회만 진정한 교회이고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 교황청의 음모이며 베도의 길을 기독교회에게 제시한 것이다.

당시 문서에서는 "이미 기독교 신앙이 있는 이들(로마 천주교인)을 재세례하는 행위를 비롯해서 기존 천주교인을 물질과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유인하는 행위들이 '개종의 전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로마 교황청은 그들의 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하여 WCC를 미혹했으며 이어서 WEA도 미혹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단히 위험한 위협이며 공격이다.

최소한 WEA라고 이름하는 단체가 그 이름처럼

기독교회관에 민토시장 오픈

보증금 없는 시장, 중앙홀 공유, 최적화된 공간, 이익 공유



대표 지승룡 목사(사진)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슬로우마르세 민토시장을 오픈하고 보증금 없는 시장, 수수료매장 형태의 매출과 연동되는 임대료, 영세상인을 위한 중앙홀 공유, 최적화된 공간과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공간을 만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시설을 만들어 많은 이웃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카페, 갤러리, 서점, 세미나실, 강의실 등 여러 공간을 배합한 점이 민토시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회관 지하1층과 지상 1층, 2층 총 60여평을 복합공간으로 꾸며 역동적이고 실리적인 모습으로 선보여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이웃들과 동존문화(종교5가) 10여 년 전에는 지금의 흥대 같은 역할을 감당해줄)를 만들어 간다는 바람이다. 지하문화 공간은 70평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며 4월 20일

부터는 하루에 세 번씩 각종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광장시장 공연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저여기 가게(여성소독 여성가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가게라는 의미 있는 가게를 운영하여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템을 교환과 접목하여 아름다운 문화를 꾸꾸어 갈 계획이다.

협업시장으로 시장 구성원들간의 협력시장 형태로 운영되는 슬로우마르세 민토시장은 콜라보레이션 시장으로 점포마다 복합시장형태로 일정 이익을 공유하며 문화프로그램이 있는 이벤트시장 등의 형태로 협업과 문화를 통한 신시장을 열어간다.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민토시장에서 아이템을 의논하여 한 식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스스로 가는 것이다. 이미 2006년 5월에 '개종에 관한 종교간 성찰 : 정론에서 행동규약의 공유'를 주제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된 WCC의 '종교간 대화 프로그램'과 로마 교황청의 바티칸 종교간 대화 평의회'라는 두 단체의 밀약여행에 WEA가 동참한 것이다.

만약 WEA가 '복음주의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적인 불륜과 타락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비복음주의' (로마교황청)와 '복음주의'는 타협할 수 없음을 만 천하여 공포했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과 손을 맞잡고 베도의 길로 깊이 빠져든 것은 대단히 통탄할 일이다. 신앙적인 불륜에 대하여 경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륜에 동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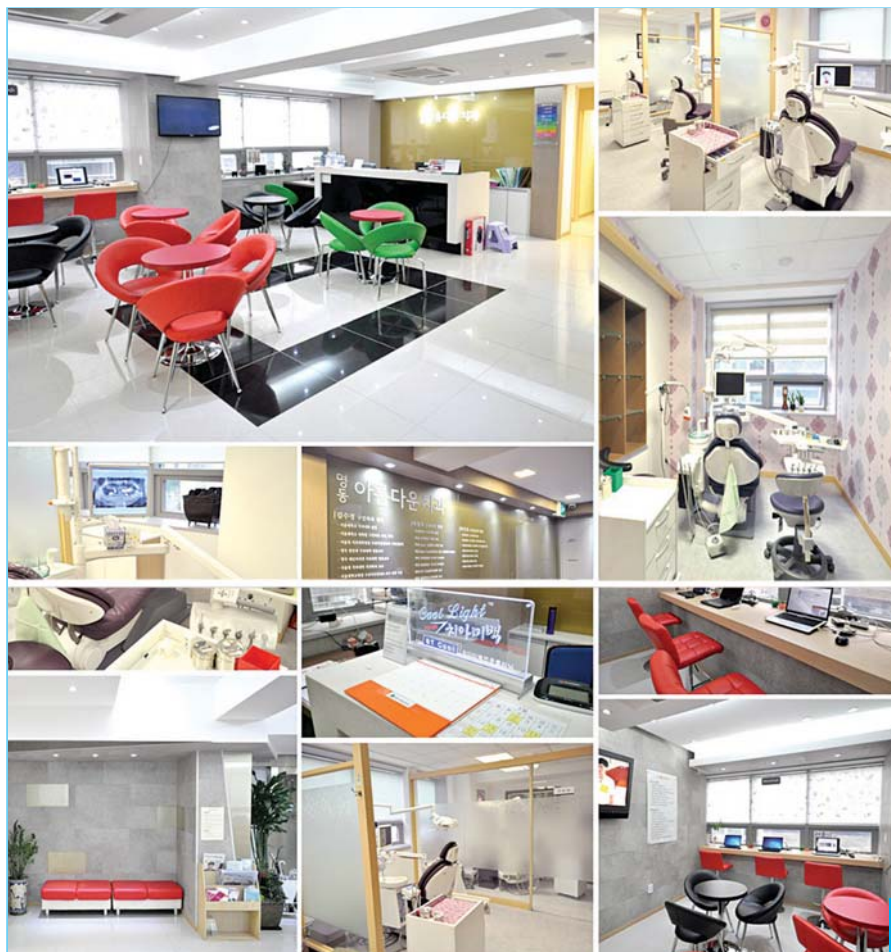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결정이 이미 2007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국제 기독교사회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잘못된 아욕 때문에 2009년 6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당시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는 WEA에 가입서명을 하고 말았다. 스스로 베도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지 말아야 할 베도의 길을 한국교회의 연합체인 CCK(한기총)가 걷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2010년 3월에도 WEA 대표(제프 터너클리프)와 WCC 총무(올라프 트비트)는 회동을 통하여 "신교와 복음전도, WCC와 교황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개종에 관한 규범(교파 간 대화 중 자신의 교파로 개종시키려는 직·간접적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의 확대 등 공동의 관심사와 이들 분야에서 양 기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기독교중앙신문제공



명동아름다운치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업무협약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진료하는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입니다.

다년간 임상경력과 함께 믿음의 뜻을 품은 치과입니다.

구강건강을 통한 마음과 치아가 아름답게 웃을수 있도록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진료안내 : 임플란트, 치아교정, 심미보철, 어르신을 위한 틀니, 보철진료
평일 진료시간 : 오전 9:30분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야간진료 : 오후 9시까지

오시는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출구 50m
직진 세대빌딩 8층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8층

찾아오시는길



문의 / 상담 : 02-777-1224 , 778-122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임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임종달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여 목사 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청정지역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해 저온 착즙한

‘운악산포도즙’ 판매

http://woonaksanpodo.com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인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하는 ‘운악산 포도’는 산간 고랭지 포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심하여 당도가 높고 상큼한 맛과 향이 높은 ‘우수한 포도’입니다.

저희 운악산포도작목반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운악산 포도’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자체적으로 설치한 ‘저온착즙기’에서 착즙, 밀봉·포장하여 소비자 분들께서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효능 : 피로회복, 피부미용 ※목회자님·교회·단체 특별우대

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30봉 1박스(택배비 포함)	110ml 50봉 1박스(택배비 포함)	110ml 30봉 2박스(택배비 포함)	110ml 50봉 2박스(택배비 포함)	110ml 30봉 3박스(택배비 포함)	110ml 50봉 3박스(택배비 포함)
	28,000원	43,000원	50,000원	80,000원	80,000원	120,000원

031-584-3806, 010-2225-3808
평일 :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3시
계좌번호 : 농협 351-0663-7414-03(예금주:이봉기)



운악산 포도즙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15번지
하판리 영농조합법인 전화 : 031)584-3806



운악산 포도 재배 현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춘계 성령충만수련회

주제 :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롬12:1-2)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땅들은 희망의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양지를 섬기시는 전국 여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치유하심과 희망의 싹을 틔우도록 저희 여교역자국이 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춘계 성령충만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령충만함을 받고 큰 부흥을 이루는 2016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강사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조남영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중경회장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 일시** 2016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대상** 총회산하 전국 여교역자 전 회원
- 주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 문의** 010-5313-3379, 010-8541-0191, 010-3784-3731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진동웅 목사
새소망교회



고문 정부웅 목사
대림별영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조직

임원단

차장



순복음천안교회
김효신 목사

행사부장



예준순복음교회
최영호 목사

경조부장



회복의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복지부장



순복음경동교회
이경자 목사A

홍보부장



순복음빈송교회
한순남 목사

기획부장



임신별영교회
조영란 목사

선교부장



순복음참죽은교회
조은주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봉사부장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정보통신부장



부활순복음교회
신영호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시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순복음시랑교회
이현욱 목사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예수향기교회
장에스더 목사



경기경주지방회 지부장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경기경주지방회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부지방회 지부장
형문신교회
김남순 목사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원음교회
이경자 목사B



경기북부지방회 지부장
풍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경기북부지방회 지부장
순복음성광교회
김인연 목사



울진지방회 지부장
순복음성광교회
조은연 목사



울진지방회 지부장
신영광교회
설수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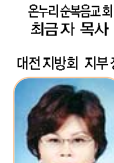
경기도지방회 지부장
김동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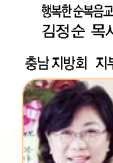
강원동지방회 지부장
강원동지방회
최정희 목사



강원서지방회 지부장
강원서지방회
정희자 목사



대전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안선자 목사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김찬애 목사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김문자 목사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김덕숙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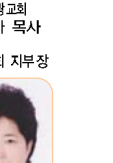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이순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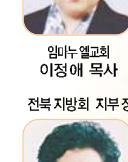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조은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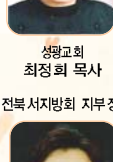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배영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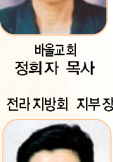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배영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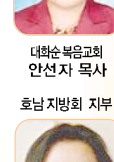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임정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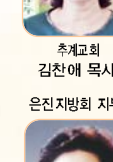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심혜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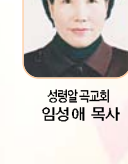
전라지방회 지부장
전라지방회
백영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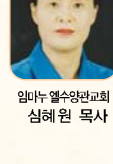
호남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정복래 목사



호남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심연숙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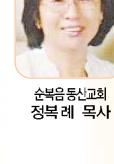
성령말씀교회
임성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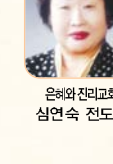
임마누엘수양원교회
심혜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순복음동신교회
정복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성명서

- WEA(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 -

WEA(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는 '2014년 10월에 개최하려다 실패한 WEA 세계지도자대회로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오직 성경의 권위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는 WEA 세계지도자대회 개최를 반대한다.

1. WEA는 복음이라는 가면을 쓴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반대한다.

복음주의라고 칭하는 WEA는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회가 아니다. 복음이라는 가면을 쓴 비성경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WEA는 1997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는 2가지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기독교회로 인정하기로 WCC와 로마교황청과 합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으며,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 하여도 문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등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 등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WEA의 세계지도자대회 개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WEA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에 반대한다.

WEA는 앞에서는 성경적인 신앙고백을 하면서 뒤로는 WCC 및 로마가톨릭과 교제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바리새적이며 이중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

WEA는 WCC와 로마교황청과 더불어 '신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선교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유주의 신학과 WCC, 로마가톨릭을 배척하지 말고 이들과 교제, 협력을 추구하는 포용주의 노선을 주창하는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WEA는 정통복음주의의 노선을 버리고 종교 혼합주의를 택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WCC를 이단이요, 동성애 옹호단체요, 다원주의 집단으로 성토했다. 그런데 WCC 및 로마가톨릭과 상호 협력을 선언한 WEA의 세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가톨릭과 WCC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에 대하여 저항해 왔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비참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3. WEA는 '오직 예수 구원'을 전하지 말라는 개종전도금지를 선언하였기에 반대한다.

WEA는 WCC 및 로마가톨릭과 함께 개종전도금지를 선언하였다. 다른 종교 입장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는 기독교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렸다.

개종전도금지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 24:14)는 전도명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증인의 사명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WEA가 주장하는 개종전도금지를 찬성할 것인지 '오직 예수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따라 개종전도금지를 반대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오직 예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4. WEA는 WCC나 로마가톨릭과 동일하게 종교혼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WEA의 신학위원장 슈마허 박사는 WCC 10차 부산총회에서 'WEA는 WCC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발표하였다. WEA는 WCC의 세계종교통합과 종교다원주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제10차 WCC 부산총회를 유치한 8개 교단과 3개 기관으로 조직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로마가톨릭과 정교회와 함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일치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2014. 5. 22.)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들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WEA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하고 있다. WEA는 다른 종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다른 종교의 교리와 구원관을 인정해야 한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종교통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WEA는 WCC나 로마가톨릭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고후 6:15)는 말씀처럼 종교다원주의인 종교통합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신앙이다.

5. WEA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WEA의 세계지도자대회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킨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WCC와 로마가톨릭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WEA의 세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면, 대한민국의 성경적인 교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이름에 걸맞게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면 WEA 세계 지도자대회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6년 2월 29일



사단
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WEA·WCC 반대운동연대 일동

(<http://cafe.daum.net/wccpusan>)

원로목회자에게 영정사진 전달식 가져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에게 무료 영정사진 봉사 계획

지난 2월 12일(금)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이사장 임원순 목사)가 원로목회자들에게 영정사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영정사진은 한국교회원로목회자의 날(1월 8일)에 촬영된 사진으로 참석자 800여 명 중에서 우선 신청자 150여 명의 영정사진이 각각이 앞섰다. 영정사진이 긍정적인 게 아니어서 걱정했는데 촬영 순서를 기다리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단정하게 입으시면서 자원봉사자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기쁨과 보람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후원회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에 영정사진을 찍어드릴 때는 걱정이 앞섰다. 영정사진이 긍정적인 게 아니어서 걱정했는데 촬영 순서를 기다리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단정하게 입으시면서 자원봉사자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기쁨과 보람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후원회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는 "누구든지 부모님이나 원로목사님에게 영정사진을 찍자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볼 때 후원회에서 솔선수범으로 원로목회자들에게 기쁨을 드릴수 있어 참 행복했으며 또 한 형편이 어려워 영정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원로목회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임회장 김진옥 목사는 "원로목회자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저 스스로가 많은 것을 배운게 된다. 원로목회자들에게 대한 봉사가 바로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인 것 같다. 후원회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원로목회자들을 섬기며 기쁨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신연옥 대표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원로목회자들에게 무료 영정사진 찍어드리기를 계획하고 있다. 오늘 이 전달식은 첫 삼을 뜯었에 불과하다. 최선을 다해서 고급약자에 영정사진을 인화해서 선물 드리는 사역을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감당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기 위해 재능기부로 파고 다스튜디오대표 유정선 장로가 자원봉사로 섬겼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오직 말씀으로 전도한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생각해보았다.

1. 프로는 생명 걸고 경기에 나가고 아마추어는 취미로 나간다.
2. 프로는 결과를 산출하고 아마추어는 과정에 만족한다.
3. 프로는 한 가지에 미친 사람들이고 아마추어는 여러가지를 한다.
4. 프로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힘들면 포기한다.
5. 프로는 창조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모방하는 사람이다.
6. 프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7. 프로는 말한 것을 행동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말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많은 프로들이 나온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등등.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불안정한 프로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아마추어들이다.

그러면 최고의 프로는 누구일까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시다. 이유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구체적 목표를 정하시고 실행에 옮기셨기 때문이다. 최고의 목적은 인류구원이요 인류구원의 준비는 기도였고 구체적 실행은 바로 전도였던 것이다.

"세백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막1:35-38) 전도는 최고의 프로중의 프로만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최고의 프로중의 프로시다. 인생의 초점을 오직 전도에 맞추셨기 때문이다. 기도도 전도하기 위해 병 고침도 전도하기 위해 십자가도 복음전도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열두제자 선택도 전도하기 위해서다. 난 목사로서 목사중에 최고의 프로는 없을가 늘 동경하고 찾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박영수 목사였다.

박영수 목사는 프로중의 프로다. 이유는 예수님처럼 전도에 미쳤고 전도를 실행하고 열매까지 맺게 하니 최고의 프로라고 생각한다. 도구와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고 복음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전도자다. 간단히 소개하면 길거리에서 아무나 머리에 손을 얹고 요 1:12 말씀으로 영접기도를 시킨다.

그 다음 이름과 생년월일과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적고 주일날 교회온다는 약속까지 받고 당일날 교회까지 불어는 전도법을 본인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해보지 않았고 할 수 없는 박영수 목사만이 개발한 탁월한 전도법이다. 진정한 프로만이 할 수 있는 전도법이다. 누구든지 인생의 프로가 되고 싶다면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법을 배워 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최고의 프로였던 예수님께 배운 베드로, 요한, 바울 등이 인생의 최고의 프로가 되셨듯이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법을 배워 개교회에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탁월한 프로들이 다 될 것이라 생각하여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법을 적극 추천한다.

서산 /조비율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재)진흥장학재단, 23명에게 장학금 전달

가정 형편, 품성, 미래 향한 비전 등 심사



(재)진흥장학재단(이사장 박경진 장로)은 제6회 장학생을 모집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부모가 외병중인 가정의 자녀, 장애학생, 특기생 등 가정형편과 학업성적, 품성, 미래를 향한 비전 등의 요건을 심사해서 신규장학생 11명, 재학생 23명을 선발해 27일 오후 2시 진흥아트홀에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사장 박경진 장로는 "기독교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소박하게 시작한 장학 사업이 어느덧 6회

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자라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 장학생들이 감사와 나눔을 배워 장차 성년이 되었을 때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기 바랍니다"며 소망과 기대를 밝혔다.

(재)진흥장학재단은 지난 40년간 기독교성화기원 다음 제작해온 (주)진흥문화의 창립자 박경진 장로가 회갑 기념으로 쾌척한 1억원으로 출범한 이후, 부

인한준자 권사 명의의 부동산 10여억 원을 기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장학재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려웠던 시절,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도 슬하의 3남매 교육을 남다른 열정으로 뒷받침했던 부부가 우리 사회 그늘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펼쳐온 것. 2011년 제1기 장학생 선발 이후 그동안 25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 다음 세대의 학업을 후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펼쳐왔다.

특히 (재)진흥장학재단은, 1회적인 장학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멘토가 되어 학업과 품성, 비전을 돌보는 인격적 동반 관계를 맺는 것이 특징이다.

장학생 선후배 간의 관계가 돈독해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도 장학재단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사장 박경진 장로는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입양인도국량문, 한국기독교유적지 발굴 및 소개 등 기업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12월 세계복음화협의회가 선정한 국민대상 기업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노인복지협 제197회 조찬기도회 개최

국가와 민족, 각계 지도자 위해 기도

한국노인복지선교협의회(대표회장 조지현 목사)는 지난 2월 12일(금) 오전7시 여전도회관 2층 루미시기념관에서 제197회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1부에 배는 박부용 목사(사. 행복한세상 대표회장) 사회로 김일삼 목사(경원교회)의 기도, 조선희 목사의 성경봉독, 손미경 전도사의 특송, 최윤권 목사(기독교 명예총장)의 고후 6:9-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죽은 자 갇으나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계속해서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김홍석 목



사(전 러시아 공사)가 '국가와 민족', 박종철 목사(나사렛 대표회장)가 '대통령과 각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를 인도한 후 황준의 목사(기감 원로)의 봉헌송 순으로 이어졌다. 2부 발표 및 토의시간은 조지현 목사의 사회로 허정인 목사(문학호수수양관 관장)의 기도, 장기숙 선교사의 시낭송, 고대식 장로의 하모니카

연주에 이어, 유인학 교수(전 조폐공사 사장)가 특강을 인도했다.

이어진 2부 시간은 계속해서 대표회장 조지현 목사의 성시낭송, 김동권 목사(전 대한성서공회 이사장)·박서영 법무사의 격려사, 김동철 선교사(KBS 텔런트)의 드라마 공연으로 마쳤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YONSEI NANUM CLINIC

피부 · 성형 · 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 · 수 · 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WCC와 반기독교적인 가톨릭과 일치 선언 WEA 반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WEA 반대집회

WEA·WCC반대운동연대 주관



송춘길 목사
WEA·WCC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WEA 반대집회가 지난달 20일(토) 오후 1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려 다원주의 WCC와 반기독교적인 가톨릭과 일치를 선언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와 복음주의 기독교 회라고 하면서도 로마 가톨릭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구원설이나, 회개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도 형제라는 등등 수많은 비 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를 잘못이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존중하고 있는 그릇된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WEA의 이같은 행위는 목숨 걸고 회를리며 일으켜 세운 역사적인 정통기독교회를 도리어 무너뜨리는 역적행위이며, 복음주의의 가면을 쓰고 저지르는 반역주의라며 기독교 이름으로 치러지는 WEA 세계지도자대회의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올월드 경배와 찬양단의 찬양과 연주가 2시간 동안 계속되어 성령

의 충만을 받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 넣어 주었으며 삼통선교회 변명탁 목사의 인도로 집회를 위한 10분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 뒤 WEA·WCC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좌측 사진)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송 목사는 먼저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기총이 ‘WCC와 교향성’의 입장을 수용한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모순 행위이며 한국교회의 반목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보. 연대는 지난 2013년 10월 제10차 WCC(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장소와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배도자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WEA는 신학위원회 슈마허 박사를 파송하여 ‘WEA는 WCC와 입장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WEA는 결국 세계종교를 통합하여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있는 WCC의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밝힌 것

이라고 풀이하고, “그런 이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세계복음주의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변질을 부채질하는 일을 저지르면 불 수 없게 내서게 된 것”이라고 시위 목적을 밝혔다.

이어 예정 합동 이단사이비대책위원 박기성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찬양사역자 현진욱 관사의 특별찬양, 예정 합동 초원교회 신정희 목사(세계무디부흥사회 총재, 초원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갈 1:7-10 말씀을 본문으로 ‘WEA를 경계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갈과 속이 다른 그릇된 신앙행위자들의 그릇된 복음전파를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찬양사역자 주찬 성도의 특별찬양, 자유감리회 이의근 목사의 규탄사, 순례자의교회 양형모 목사의 구호제창, 사회자의 광고, 신정희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날 집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구호제창을 통해 잘못된 포용주의와 혼합주의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WEA 세계지도자대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시 취소할 것을 전하고 WEA가 ‘세계복음주의 연맹’으로 올바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WCC와 교향성’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철회하고 진정한 복음주의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설교하는 신정희 목사(예정 합동 초원 교회, 세계무디부흥사회 총재)



올월드찬양단의 찬양과 연주광경



WEA반대운동 집회광경

전북 익산식품 클러스터 부지에 할랄단지?

할랄푸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올바른 기독교 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2016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할랄푸드, 이슬람이 온다>와 <동상에 관한 불명백한 진실>을 각각 지난 22일(월), 29일(월) 오후 6시 2주간에 걸쳐 방송했다.

2016년 현재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할랄푸드'와 '동상'의 전반적인 실태를 사실적으로 파헤쳐 한국교회 및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의 대안까지 집중 조명했다.

[할랄푸드의 오해와 진실 ①] 깨끗하고 안전한 할랄푸드?

월빙이란 이름 속에 숨겨진 할랄푸드의 실체를 파헤친다.

최근 '할랄푸드(Halal Food)' 육성정책을 본격화하며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전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정부 정책에 따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할랄그리고 이슬람.

CTS는 대중들에게 '월빙,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할랄푸드의 과장된 효능과 대비되는 전인하고 비위생적인 '도축방식'을 집중 취재하여 그 실체와 위험성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슬람 율법을 이행하기 위해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밟는 할랄푸드의 방식이 마치 안전한 식품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로 둔갑되어진 사실과 율법에 따라 동물의 신장이 되는 상태에서 한 쪽 다리를 매달아 모든 피를 빼내는 등 전인한 도축방법과 피로 범벅이 된 도축 현장의 비위생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전담해 그 심각성을 알린다.

[할랄푸드의 오해와 진실 ②] '새롭게 떠오르는



블루오션 할랄푸드?

할랄푸드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파생될 문제점을 진단한다.

'할랄푸드'는 과연 식품 업계만의 문제일까? 취재 현장에서 만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할랄시장 육성, 곧 이슬람 문화권의 우리사회 유입은 이슬람 문화권의 허용과 확장, 더 나아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에 할랄 전용단지가 생길 경우 도축은 물론 포장에서 운송, 보관까지 유통 전반에서 비할랄인 '하람'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무슬림 관리자의 고용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할랄푸드를 통해 이슬람교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지역은 할랄산업을 허용함으로써 유입된 무슬림들로 인해 다문화시대를 역행하는 자본화중심주의적인 마을 형성, 여성인권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알고 있다. 특히 영국은 무슬림의 정착으로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이슬람 성전이 되는 비극적인 현실에 이르렀고 CTS 특집 르포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와에도 명백한 종교적 음식 할랄푸드 육성지원에 따른 종교적 편향의 문제를 비롯해 산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할랄푸드 산업을 둘러싼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그로 인해 파생될 더 큰 문제점들을 집중 취재해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할랄푸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예정이다.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청담온선교회 담임,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새롭게 바라보는 힘

(창 2:19)

영어단어 중에 '루틴(rout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을, (반에 박힌) 일상'이라는 뜻으로, 단어 자체에 지루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일상'의 사전적 의미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현실 속에서는 역시 부정적 어감으로 쓰입니다. 사실 세상살이는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때론 지루함을 넘어 지경기도 합니다. 늘 보는 사람을 보고, 가는 곳을 가고,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새로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음식 등 오감을 자극하는 새로운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일상의 대척점에 있는 '일탈'로 불리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이런 일탈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욕을 되찾고, 새로운 동기부여

를 합니다.

이렇듯 여행이 주는 이점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틀에 박힌 '일상' 속에서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상 속 행복이 없다면, 여행은 '4차(플러스 알파)'가 아닌 도피가 되고 맙니다. 여행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기 싫다며 한숨과 꾸념을 내뿜는다면, 여행의 의미는 무색해 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먼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늘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현실에 대해 불평하며 유투피아를 꿈꾸는 사람은 유투피아에 대려다 놓아도 트집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력(Creativity)이 필요합니다. 창의력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의가 아니라 창조(Creation)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의를 있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틀 태연, 오랜 연인의 감춰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내가 사는 동네의 매력을 찾아내는 것이 창의고, 화려하고 이국적인 음식 대신 늘 먹는 집밥의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 창의입니다. 창의력을 갖고 일상을 바라보면 지루하던 것들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것들보다 훨씬 소중해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아담(Adam)에게 맡기신 첫 번째 임무는 작명(Naming)이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동물들의 이름을 네 스스로 지어보라."는 창의적인 제안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선물하신 피조물의 세계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 바라본다면, 지겹고 편에 박힌 '루틴'에 머물지 않고 일상을 여행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에덴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설

WCC·가톨릭과 일치 도모는 배도행위

한국교회가 WEA세계지도자대회를 두고 그동안 WEA의 행보를 놓고 극심한 양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책 또한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WEA가 종교다원주의 WCC와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며,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제도를 존중하고 그들과 일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이 같은 WEA의 정체성과 추구하는 노선은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반역행위인 것이다.

결론으로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이와 거리가 먼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단체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은 신앙인의 양심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배도행위로 이 외관적인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는 한 WEA의 신앙노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정통기독교회는 종교개혁자 루터, 존 칼빈, 존 나스 등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교황에 대하여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에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저항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해서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오늘날 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그런데 WEA의 경우는 복음주의 기독교회라고 하면서도 로마 가톨릭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구원설이나, 화제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도 형제라는 등등 수많은 비 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를 잘못이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존중하고 있다.

WEA의 그 같은 행위는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일으켜 세운 역사적인 정통기독교회를 도리어 무너뜨리는 역적행위이며, 복음주의의 가면을 쓰고 저지르는 반역주의인 것이다.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WCC와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여 개종전도금지를 선언한 것을 들고 있다. 이 같은 WEA의 행위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마28:19) 하신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 막는 대적 행위라는 것이다.

복음주의를 지향하던 WEA가 이렇게 타협한 배경과 원인으로는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가 믿는 모든 전통적 교리를 신봉하나 사회적 철학을 포함시켰다"(세계복음주의운동의 흐름/김삼복 목사)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교회를 장악할 때, 이를 대항하여 성경을 지키고자 나선 무리들이 생겨난 것이 근본주의자들이고, 이들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또 하나의 다른 신학노선을 주장하며 생겨난 그룹인 신복음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WEA이다.

이들 신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반하여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종교다원주의 WCC와 협력하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존중하고, 이들과 일치를 도모하는 폭넓은 교제를 생명으로 하여 (WEA의 역사를 1846년이라고 주장하나) 1951년에 WEF(World Evangelical Fellowship/세계복음주의협의회)를 창립했으며, 2001년에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세계복음주의연맹)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회는 WEA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성경적 역사적 정통기독교회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한다. 특히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성경의 무오성과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WCC를 반대했던 한기총이 'WCC와 교향성'의 입장을 수용한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여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모순 행위인 것이며 한국교회를 또 다른 분열로 내모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연합기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복음주의 신학으로 재무장하며 불의나 비성경적인 사상과 타협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잘못된 포용주의와 혼합주의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WEA세계지도자대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WEA가 '세계복음주의연맹'으로 올바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WCC와 교향성'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철회하고 진정한 복음주의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교단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교단 총회장



전동웅 목사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

회장



신재영 목사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대표고문 |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임종달 목사(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명 목사(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총회장 | 전동웅 목사(세소망교회)

지도고문 | 김인찬 목사(창신교회)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

정부용 목사(대림벨교회)

증경회장 |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간현교회)

회장 |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상임위원 |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

오승목 목사(천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백영자 목사(죽동순복음교회)

부회장 |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상임총무 |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상임부총무 |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산미교회)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

최장식 목사(순복음복원교회)

사무국장 |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교회)

신복희 목사(순복음화평교회)

박홍렬 목사(오성사랑교회)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

서기 | 성기찬 목사(동울산순복음교회)

재무 | 조은혜 목사(순복음빛원교회)

회계 |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감사 | 김종연 목사(은혜교회)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회원 |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회)

이희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준회원 | 정한우 전도사(순복음빛원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사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신입생
- ⑥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주·야간)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